

2025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결과 공개

- 348개(51%) 기관 '우수' 이상 등급, 공공데이터 제공 수준 전반적 향상
-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AI·고가치 데이터 적극 발굴·개방 확대 추진

< 2025년도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추진 사례 >

(국토교통부) 교통카드 이용 합성 데이터를 개방하여 AI 기반 교통 서비스 개발에 활용

- 교통카드 이용 합성 데이터는 실제 교통카드 이용 정보를 기반으로 익명화와 통계적 변형을 거쳐 생성한 가상데이터로, 교통 정책 수립과 AI 기반 교통 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되고 있음
- 현재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약 4만건 이상 활용되고 있으며, '25.3월 수도권 교통카드 데이터 개방에 이어, '25.12월 비수도권 데이터를 추가 개방하여 현재 전국 단위로 서비스 제공 중임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범람·도시침수 데이터 민간 개방으로 기후위기 대응

- 국가 및 지방하천범람 지도를 기반으로 총 4,512개의 지도 파일을 행정구역별, 빈도별, 유역별 지도 등의 형태로 민간기업·학계 등에 제공
- 침수면적 통계 데이터를 통해 해당 지역의 하천범람으로 인한 침수 규모 정도를 예측하여 도시 침수연구, 생활안전지도 작성 등에 활용

※ 홍수위험지도 제공포털(data.floodmap.go.kr)에 제공 중으로,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시 등 6개 기관이 실시간 공유 중

(해양수산부) 수산물 유통 데이터 개방으로 수산물 시세 예측 서비스(SeaChart) 제공

- 천여개 어종, 생산·위판·유통통계 및 230개국 수출입 현황 등 '수산물 유통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수입변동, 수급예측, 시세 예측 등 'SeaChart' 솔루션 개발 지원

※ 80여개 기업이 이용하고, 월 1만여건 조회 등 개발지원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3월 31일(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총 68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이하 '실태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발표했다.
- 이번 2025년에는 공공데이터의 △개방·활용, △품질, △관리체계 3개 영역 10개 지표를 점검하고 평가했다.
- 특히, AI 시대에 부합하는 고품질·고가치 공공데이터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AI 친화·고가치 데이터 개방' 실적 등을 새롭게 도입하여 관련 노력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수준 전반적 향상, 기관 간 격차 해소는 과제>

□ 전체 기관 평과 결과,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의 비중이 지난해 40%대에서 50%대로 증가하는 등 공공데이터 제공 및 운영 수준이 꾸준히 늘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우수 이상 등급 비중: (23년) 36.2% → (24년) 40.9% → (25년) 5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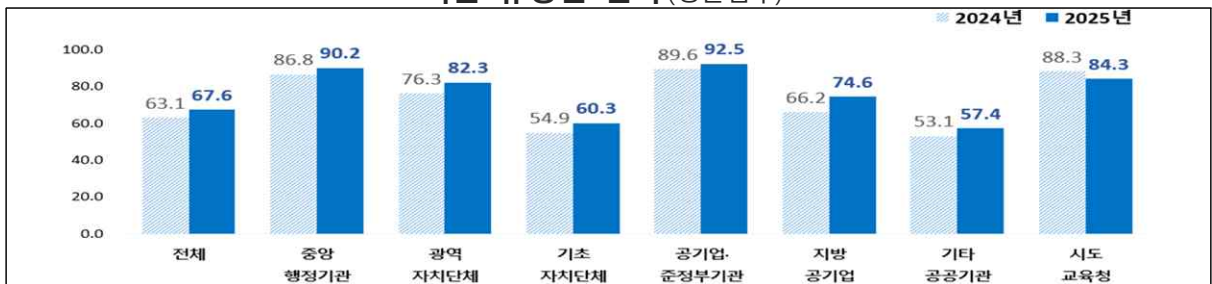
□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기업·준정부기관(92.5점), 중앙행정기관(90.2점)은 평균이 90점대를 기록하며 공공데이터 개방과 품질관리, 관리체계 전반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 시도교육청(84.3점)과 광역자치단체(82.3점)는 ‘우수’ 수준, 지방공기업(74.6점)과 기초자치단체(60.3점)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지난해 ‘미흡’에서 올해 ‘보통’으로 상향되었다.

○ 기타공공기관*(57.4점)은 평균 점수가 지난해보다 4.3점 올랐으나, 여전히 ‘미흡’ 등급(60점 미만)에 머물러 있어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공공연구원, 공공재단법인, 공공협회 등

<기관 유형별 결과(평균점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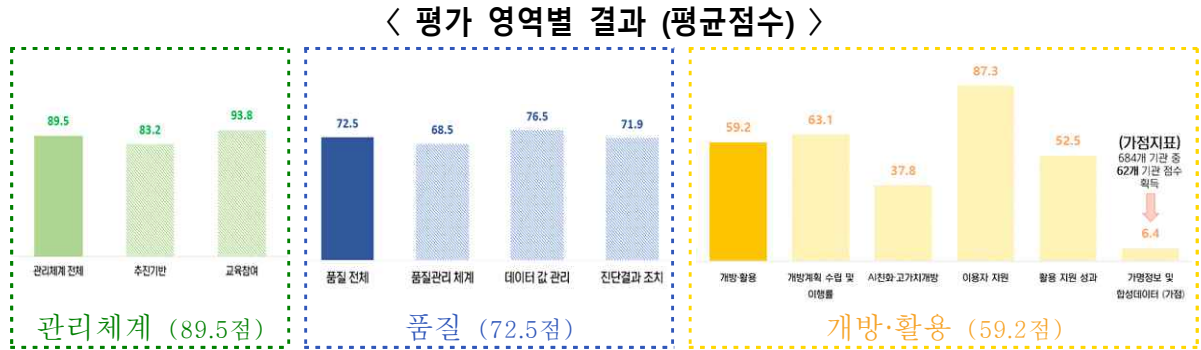


<데이터 관리체계는 안정적, 인공지능(AI) 등 전문 분야는 과제>

□ 평가 영역별로는 관리체계(89.5점), 품질(72.5점), 개방·활용(59.2점)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 대부분의 기관이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관련 교육에 참여하는 등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역시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을 보였다.

- 관리체계 영역과 품질 영역은 기관들의 추진 노력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준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개방·활용 영역은 데이터 비식별 처리 등 전문 기술이 요구되는 ‘AI 고가치 데이터 개방’(37.8점)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다.



<국민·기업 필요 데이터 적극 발굴 및 맞춤형 지원 확대>

- 행정안전부는 이번 실태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각 기관이 수요와 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더 많이 찾아내고 개방할 수 있도록 관련 평가 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역량이 다소 부족한 기관에는 전문가의 1대1 맞춤형 교육과 문제 진단·실행방안 컨설팅을 제공하고, 우수 기관의 사례를 널리 공유하여 기관 간 수준 격차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 각 기관별 평가 등급 결과 등 세부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www.mois.go.kr / 뉴스·소식 > 알립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윤호중 장관은 “공공데이터는 인공지능(AI) 시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공공데이터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도록 공공데이터 TOP 100을 본격 개방하고, 공공부문 데이터 활용 역량과 품질관리 체계도 꾸준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인공지능정부실	책임자	과 장	전한성 (044-205-2461)
	공공데이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윤원정 (044-205-2463)

참고

2025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개요

□ 평가 개요

- (추진목적) 행정·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환류 체계를 통해 관련 정책 개선 및 이행력 제고
※ 근거: 「공공데이터법」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

< 전년 대비 달라진 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환경 변화 반영) AI 시대에 맞춰 AI 친화·고가치데이터 개방 노력, 가명정보 제공 및 합성데이터 개방 지표 도입 ■ (평가등급 세분화) '3등급'에서 '5등급' 체계로 변경*하고, 기관 간 수준 차이를 보다 객관적으로 진단 및 기관들의 자구적인 개선 노력 유도

* [기존] 3등급(우수, 보통, 미흡) → [개선안] 5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평가대상) 총 684개* 기관

* 중앙(47), 광역(17), 기초(226), 공기업·준정부(88), 지방공기업(47), 기타공공(242), 시도교육청(17)

- (평가영역 및 지표) 개방·활용, 품질,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0개 지표

영역	평가지표
개방·활용	▲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및 이행률, ▲ AI친화·고가치 데이터 개방 노력, ▲ 개방데이터 이용자 지원 실적, ▲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성과, ▲ 가명정보 제공 및 합성데이터 개방 실적(가점)
품질	▲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 데이터 값 관리, ▲ 진단결과 조치
관리체계	▲ 추진기반 조성, ▲ 관련 교육 참여

- (평가등급) 매우우수(95점 이상), 우수(95점 미만 80점 이상), 보통(80점 미만 60점 이상), 미흡(60점 미만 40점 이상), 매우미흡(40점 미만)

□ 점검 결과 (요약)

구분 (기관수)	매우우수(34개)	우수(304개)	보통(134개)	미흡(64개)	매우미흡(148개)
중앙행정기관(47)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상청 등 (12개)	고용노동부,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31개)	소방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4개)	-	-
광역자치단체(17)	-	광주광역시, 경기도 등 (12개)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3개)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2개)	-
기초자치단체(226)	대전광역시 서구(1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기도 성남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 (79개)	경기도 고양시, 대구광역시 군위군, 인천광역시 부평구 등 (52개)	경기도 광명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등 (32개)	충청남도 논산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등 (62개)
공기업·준정부기관(88)	한국남부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26개)	강원랜드, 한국관광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62개)	-	-	-
지방공기업(47)	부산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2개)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등 (22개)	광주환경공단,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등 (15개)	세종도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시설공단 (3개)	경기교통공사, 울산광역시도시공사 등 (5개)
기타공공기관(242)	국립암센터, 인천항만공사, 창업진흥원 등 (16개)	국가유산진흥원, 대한적십자사, 한국노동연구원 등 (71개)	국립중앙의료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산업은행 등 (44개)	경북대학교병원, 국립해양박물관, 한국국방연구원 등 (30개)	88관광개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식진흥원 등 (81개)
시도교육청(17)	광주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 (14개)	경상북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3개)	-	-	-